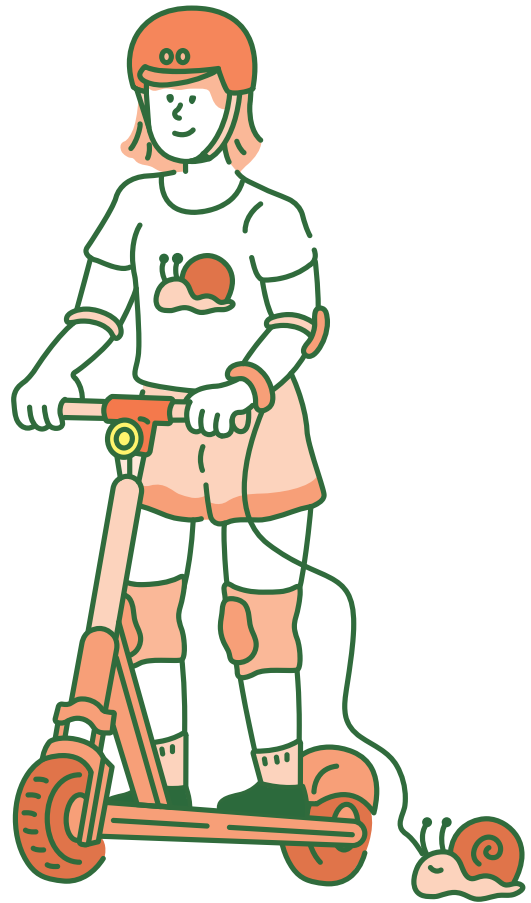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

Vol. 09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



CONTENTS

PM? 전통킥보드? 그것이 궁금하다!

- SAFETY THINK 01

이렇게 타면 안전합니다!

- SAFETY MANUAL 06

- SAFETY INTERVIEW 08

정책 홍보 Box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13

- 안전신분증 13

알고 타면 안전합니다!

- SAFETY CHECK 02

- SAFETY Q&A 03

PM타고 세종 한바퀴

- SAFETY TIP 10

안전그래픽으로 보는 개인형 이동교통수단(PM)

- SAFETY GRAPHIC 04

안전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할 때!

- SAFETY NOW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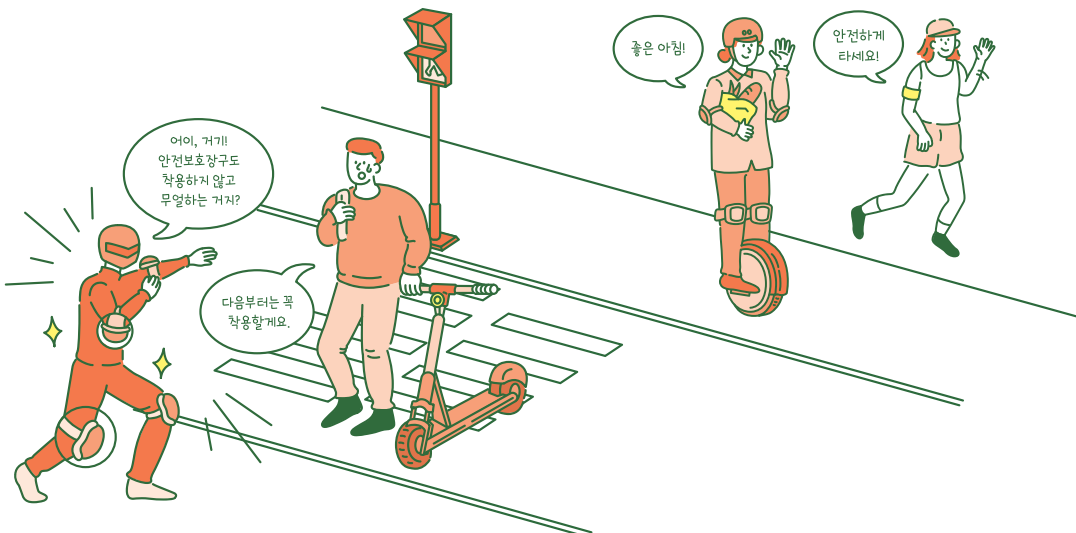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이동수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PM)입니다. 사실 PM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13년 미국에서 '오토패드'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이동수단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렸고, 좌석이 없어 불편해 수요 창출도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핵심이었습니다. 당시의 미흡했던 교통 인프라와 안전체계에서 무법자처럼 돌아다니는 위험성이 지적된 것입니다.

그렇게 잊혀진 PM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근거리 이동과 레저용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PM 판매량은 2017년 7만대 수준에서 2019년 누적 17만대 이상으로 불과 2년 사이 10만대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이용건수 또한 2020년 상반기 기준 117만 건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PM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오토패드'처럼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PM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PM 이용자의 증가로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은 반길 일이지만, 이와 함께 치솟는 안전사고는 반길 수 없는 일입니다. 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0년 3월 688건으로 3년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사고를 일으키는 고라니에 비유해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작년 12월 10일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법률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안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칙이 미흡하여 아직까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세종시에서는 PM활성화·안전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주·정차 제한구역과 도로 등의 안전 인프라 개선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 시민안전교육, 안전보험제도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안전한 이용문화의 확산과 실천이 이루어질 때 PM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의 아홉 번째 이야기,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 편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떠오른 PM을 보다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들로 담아보았습니다. 이번 매거진을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습관,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수단!

개인형 이동수단 (Personal Mobility, PM)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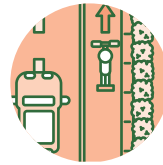
- 전기에너지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1인용 소형 개인 이동수단을 의미
- 주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이에 해당
- 별도의 규정이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었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20.12.10)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되어 법적 테두리로 편입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M, 누가 어떻게 이용할까?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 가능한 면허 취득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PM 면허 신설을 준비 중이다.



자전거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되,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 가장자리를 이용한다.

PM은 전동킥보드 하나뿐? NO!

구분	최대 시속	출력	설명
 전동외륜보드	18~40 km/h	500~1,500W	전기에너지를 동력에너지로 하고 전기모터로 구동하며 자기평형능력(자이로스코프)을 이용한 개인용 이동기구. 내장된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차체의 자세 상태를 판단하고 제품의 운동상태를 제어한다.
 전동이륜보드	10~40 km/h	300~700W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고 전기모터로 구동하며 자기평형능력을 이용한 개인용 이동수단. 내장된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차체의 자세 상태를 판단하고 제품의 운동상태를 제어한다
 전동이륜평행차	20~40 km/h	400~2,700W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고 자기평형장치(자이로스코프) 및 전기모터로 구동된다. 핸들이 있어 입식 자세로 탑승하여 핸들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20~40 km/h	250~1,000W	배터리를 동력에너지로 하고 전기모터로 구동하며,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이 부착되어 있다. 좌석이 없고 발을 발판에 올려놓고 타는 이동기구다.
 전기자전거	20~35 km/h	180~350W	전기모터를 이용해 힘들이지 않고 주행할 수 있다. 핸들 스로틀로 속도를 올리는 방식과 모터가 페달을 쉽게 돌리도록 도와주는 PAS방식이 있으며 1회 충전으로 약 40km를 주행할 수 있다.
 전동스쿠터	30~40 km/h	500~1200W	배터리 전력으로 작동되어 연료비 걱정이 없으며,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이동수단이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엔진형 제품에 비해 출력은 떨어지는 편이지만, 단거리 주행에는 부족함이 없다.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더 안전하게 바뀌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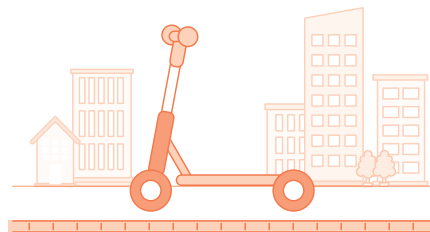
「도로교통법」 개정(6.9 공포, 12.10 시행)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다시 한 번 국회에 올랐고,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변경된 PM 관련 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자.

글 | 오호라(오세이프 에디터)

구분		현행 20.12.10	개정 21.05.13
법적 지위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 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X	원동기 면허 이상 (PM 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처벌		X	○ (20만 원 이하 범칙금)
이용 연령		만 13세 이상	만 16세 이상
만 16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X	○ (20만 원 이하 범칙금)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 금지	○	
	처벌	X	○ (20만 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 착용	○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X	○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	
	처벌	X	○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과로·약물 등 운전 금지	○	
	처벌	X	○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범칙금)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 (단순음주)	범칙금 3만 원	하위 법령 정비 중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범칙금 3만 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1만 원	
특례		-	PM의 주정차 가능지역을 시도경찰청장이 허용하는 지역 신설 (21.07.13 이후)

바로 알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연이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통행 방법, 범칙금 등 바뀐 부분도 많아졌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바로 알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Q&A를 통해 정리해 봤다.



글 | 오호라(오세이프 에디터)

Q. 전동킥보드, 2명 이상 탑승해도 된다?

A.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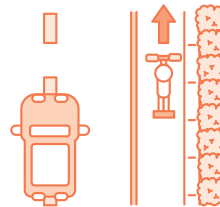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차 정원이 한명인 전동킥보드를 두 명이 타는 것은 불법!



Q. 아무 곳으로나 주행해도 된다?

A. **X**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도 주행은 금지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차선을 이용해 통행 가능하다.



Q. 안전모를 안 써도 괜찮다?

A. **X**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하자. 지난해 12월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PM 운행 시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Q. 전동킥보드는 연습 없이 타도 된다?

A. **X**

안전한 주행 습관과 충분한 연습은 필수다. 특히 방향전환, 가속, 감속 등 갑작스러운 작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고 안전하게 주행해야 한다.

Q. 전동킥보드도 음주 운전은 절대 안된다?

A. **O**

2020년 12월 10일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어 음주운전 적발 시 3만 원, 음주 측정 거부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에서는 하위 법령을 정비 중이어서 처벌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나, 완화될 일은 없어 보이니 만큼 음주 운전은 절대 하지 말자.

Q. 주차는 아무데나 해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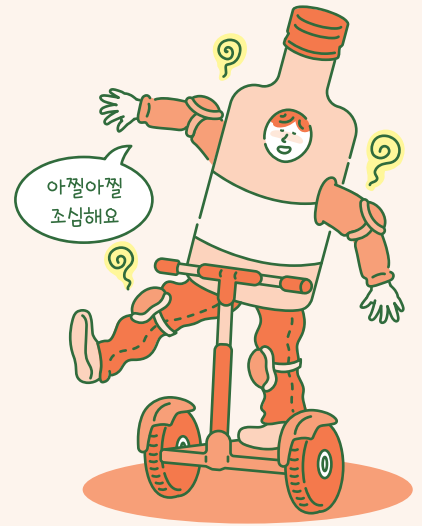
A. **X**

장애물존, 공유 PM 주차존 등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 * 장애물존: 자전거, 보행자 안전을 위한 차도와의 완충지대
- * 공유 PM 주차존: 현재 어울링 공용 주차존, 독립형 주차존 등 342개 설치 완료,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 예정

행복도시가 안전하도록 안전하게 이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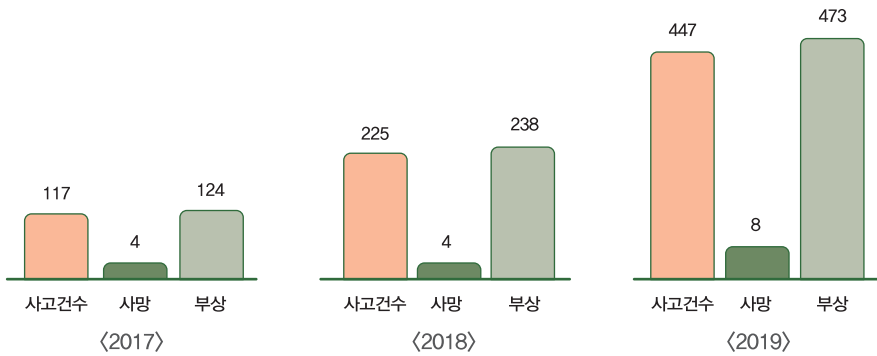
최근 몇 년 사이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에 대한 이용이 현저히 증가했다. PM 이용자의 증가로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난 것은 반길 일이지만, 이와 함께 치솟고 있는 안전사고는 반길 수 없는 일이다. PM 이용 현황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행복도시 세종에서 PM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발생 현황 (전국)

세종시의 경우 2017~2018년에는 무사고였으나 2019년 1건의 교통사고로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건수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이긴 하나 단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단위: 건, 명



연평균

사고건수와
부상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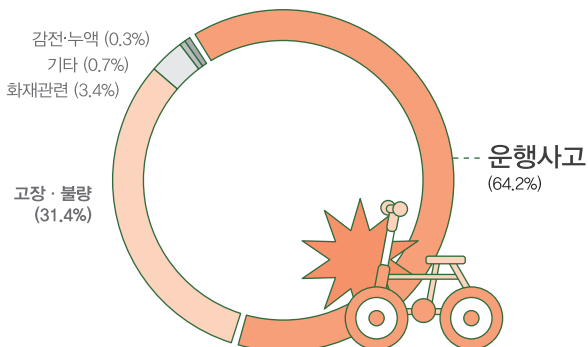
95.5% ↑

2017→2019
교통사고 사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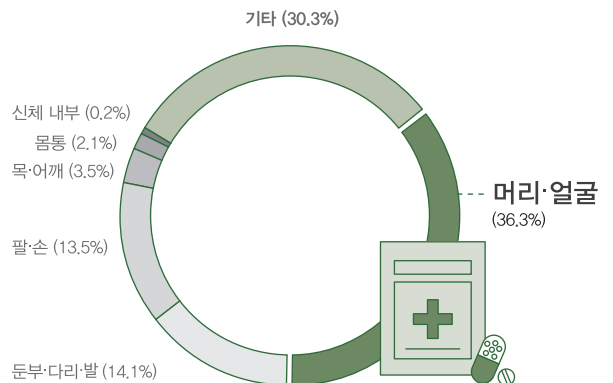
**사망자
두 배 증가** ↑

위해 원인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발생 현황 (전국)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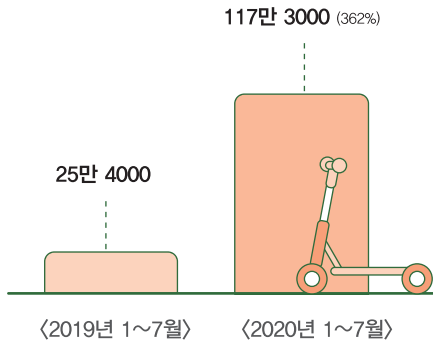
위해 부위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발생 현황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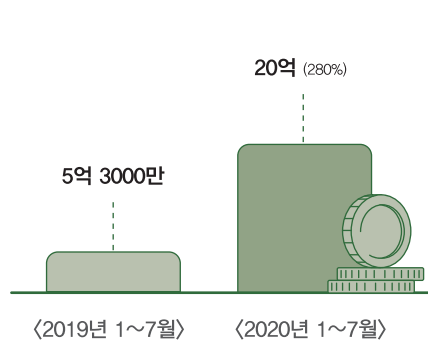
PM 이용 현황 (전국)

자료 출처 | 신한카드 카드이용데이터

이용건수(건)



이용금액(원)



전년대비

이용건수
↑
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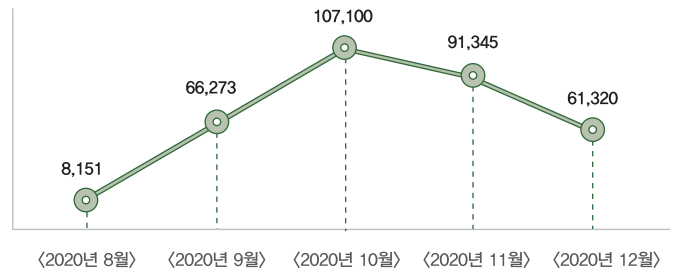
이용금액
↑
289%

세종시 공유 PM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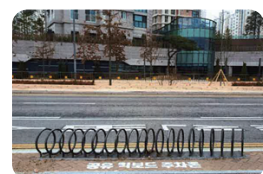
세종시 내 공유 PM 이용 현황

단위: 건



세종시 내 PM 시설 현황 (주차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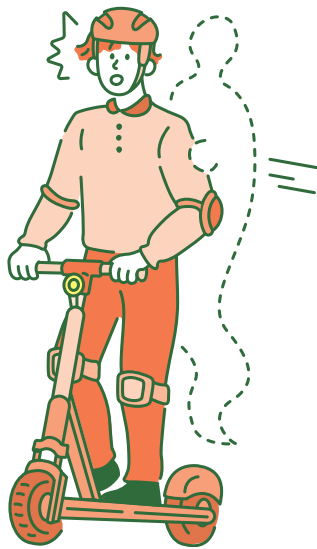
- 공유 PM 주차존의 경우 자전거 거치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
- 스마트 실증사업 실행으로 155개소 설치 (스티커형, 독립형 96개소 / 가상존 59개소)
-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342개소 설치 (어울링 공용 / 1층 130개소, 2층 167개소 3층 45개소)



자신을 해치지 말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이용 시 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해야하지만 안전모 착용률은 8.9%로 10명 중 9명이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은 PM. 자신을 해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실천해 주세요.

나 혼자 탄다!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차 정원이 한 명인 PM을 두 명이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PM, 타는 순간 보행자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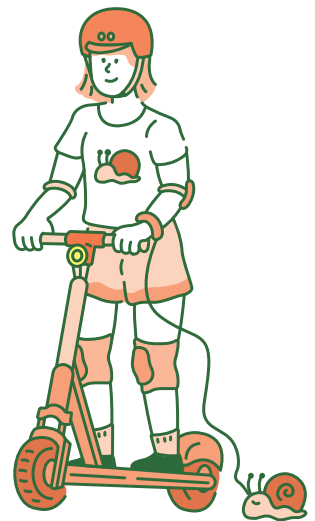
PM은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차선을 이용하고, 안전을 위해 인도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세요.

'안전'을 착용하세요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반드시 안전모,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해 주세요.

천천히 갈수록 안전해요



PM 운행 시 급출발, 급제동은 사고를 부릅니다. 운행을 할 때는 규정 내 안전 속도로 주행하고,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더 편리하게, 더 안전하게 이용하는 공유 PM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PM,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억해주세요.

STEP.1

대부분의 공유 PM은 운전면허증 인증이 필수입니다. 이용 전 운전면허증 지참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STEP.3

탑승할 공유 PM의 QR 코드를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탑승 준비 완료!
탑승 전 PM 점검과 사용법 확인은 필수!

STEP.2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오른쪽을 이용해 안전하게 주행하세요.

STE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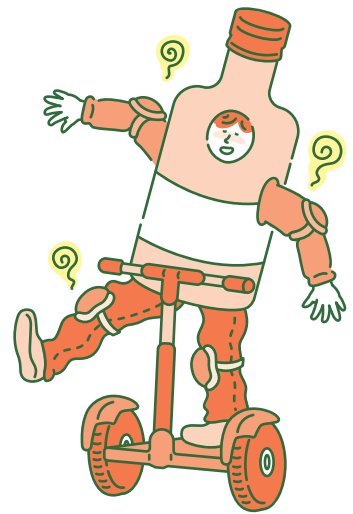
이용 후 반드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가로수 옆이나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해 주세요.

바쁠수록 지킬 것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신호를 지키고, 방향 전환·가속·감속 등 갑작스러운 작동을 자제하세요. 또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PM을 끌고 횡단해야 합니다.

어떤 운전도 음주는 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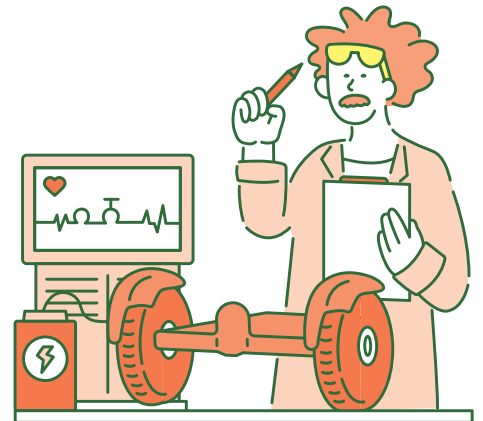
PM은 물론 자동차, 자전거 등 어떠한 수단이든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에게 가장 나쁜 불행을 만드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PM도 'T.P.O'를 지켜요



PM 운행 시 T.P.O(Time, Place, Occasion)를 지켜주세요. 통행량이 많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우천 등 기상상황 악화 시에는 주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기 전에 확인하는 안전



주행 전 브레이크·핸들·타이어 공기압·배터리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격 또는 과 충전 시 폭발로 인한 화재 위험도 조심하세요!



INTERVIEW | 공유PM 전문가

가까이 하면 편리하다, 자세히 알면 더 안전하다! 함께 즐기는 개인형 이동수단(PM)

매서운 겨울이 가고 만물을 잉태하는 계절, 봄이 저만치 오고 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살랑이는 바람이 자꾸만 문 밖으로 유혹하는 요즘,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PM을 즐기기 안성맞춤인 계절이죠. 오늘은 PM을 더욱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프리랜서 작가 이윤숙 (이하 이) | 안녕하세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이하 전) |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은 공유형 PM과 개인형 PM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PM의 경우 통상 2~5Km의 거리가 목표 이동거리입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이동한 후 주로 대중교통과 연계를 하는데요, 개인형 PM의 경우에는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공유형 PM보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공유형 PM의 경우 지하철역에 세워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개인형 PM의 경우 항상 휴대를 해야 하고 직접 충전과 관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PM은 공유형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유형 PM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 세종시의 PM 인프라 또는 이용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 세종시는 자전거나 PM을 이용하기 좋은 도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PM을 이용하려면 전용도로, 즉 자전거도로가 필수적인데 세종시에는 이미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 PM이 가장 많이 이용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 | 세종시의 PM 안전문제와 관련해 느낀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 | 세종시의 경우 사용자들의 시민의식이 높아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사고 비율이 낮습니다. 준법정신을 갖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용하는 편이라 다행히 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세종시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1인용 기준으로 제작된 PM을 2명이 탑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게 중심이 불안해지고 조향이 어려워 사고 발생률이 높습니다. 또,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보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시고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하셔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 그럼 공유 PM을 즐길 때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안전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전 | 공유 PM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안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유 PM의 경우 1인 탑승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이동수단이다 보니 2인 탑승은 꼭 지양해 주셔야 합니다.

PM이 조향장치를 몰면서 이동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음주 후 탑승은 조향이 어려워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차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작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이라고 해서 PM의 주차 관련 가이드라인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점차 블록, 보도 중앙, 횡단보도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주차관련 가이드라인데요, 앞으로 주차를 하실 때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주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 혹시 세종에서 공유 PM 이용시 각별히 주의해야 할 장소가 있을까요?

전 | PM의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주행 중 발생하는 사고이고, 두 번째는 주차 중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주행 중 발생하는 사고 가운데, 사용자의 과실로 행인과 충돌을 하거나 자동차와 부딪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키포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하는 개인형 PM 사고가 몇 차례 있었는데, PM을 타고 절대 횡단보도를 건너서는 안 됩니다. 주행이 금지된 곳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길 바라구요, 아파트나 골목길의 경우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차 중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키포드가 넘어지면서 주변의 사물을 망가뜨려서 사고가 나는 대물사고가 있고요, 보도에 많이 치우쳐 주차할 경우 행인이 걸려 넘어지거나 어린이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행자의 통행구간과 거리가 먼 곳으로 주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 그럼 세종시에서 공유 PM을 안전하게 즐길만한 추천 장소가 있을까요?

전 | 세종시는 신도시라 도시경관이 아름답고 자전거도로도 잘 만들어진 곳이죠. 그래서 자전거도로로 통행만 잘 하고, 신호만 잘 지킨다면 어디든 안전하게 PM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특히 금강변의 금강자전거도로에서 탄다면 장애물이 없어 아름다운 경치도 즐기면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 공유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법제도적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전 | 아직까지 공유 PM산업이 초기 단계다 보니 규제하는 법률이나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서울시와 MOU를 체결하면서 주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10월 경에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통해서 주차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이 몇 가지 예시로만 되어 있어서 좀 더 세분화된 주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공유 PM의 안전하고 질서있는 문화가 확립되고, 사회에 정착률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관점으로 보자면 모빌리티 도로 확충이 절실합니다. 물론 세종시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키포드 이외에도 저속 전기차 등의 다양한 이동수단들이 속속 나오기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나 저속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지정차로제'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런 추진 방향 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 앞으로 공유 PM이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갈 것인지 미래상을 그려본다면요?

전 | 앞으로 모빌리티 산업은 더욱 확산될 거라 전망합니다. 1920~1930년대 뉴욕 거리의 사진을 보면 자동차가 처음 도입되고 확산되기 시작할 때는 보도나 차선의 구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차선과 보도가 생기고 신호 체계가 생겼는데 생각보다 멀지 않은 미래에는 도로가 일반차로, PM차로, 보도로 삼분화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자동차가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도입이 됐고 우리 세대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듯 PM은 우리 세대에 도입이 돼 다음 세대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빌리티의 가장 강점이 친환경이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무선 충전 시스템에 태양광까지 접목시켜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 자동차의 단거리 탑승 수요를 모빌리티가 담당한다면 교통 체증 또한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미래를 예측해 봅니다.

취재 | 이윤숙(프리랜서 작가) 사진 제공 | 대전세종연구원

매월 8일은

쭉쭉세종 두바퀴의 날

안전도 푸르게. 하늘도 푸르게.



자전거안전교육
신청



이벤트참여

**자전거·전동킥보드 이용
6대 안전수칙**

첫째, 안전모 착용
둘째, 시속 25KM 준수
셋째, 휴대전화,이러폰 금지
넷째, 야간 라이트 점등
다섯째, 음주음전 금지
여섯째, 2인탑승 금지

**자전거출퇴근
챌린지참여**

1. 자전거 탈 때
에코바이크 App 필수실행
2. 참여우수자 선정
푸짐한 경품이 와르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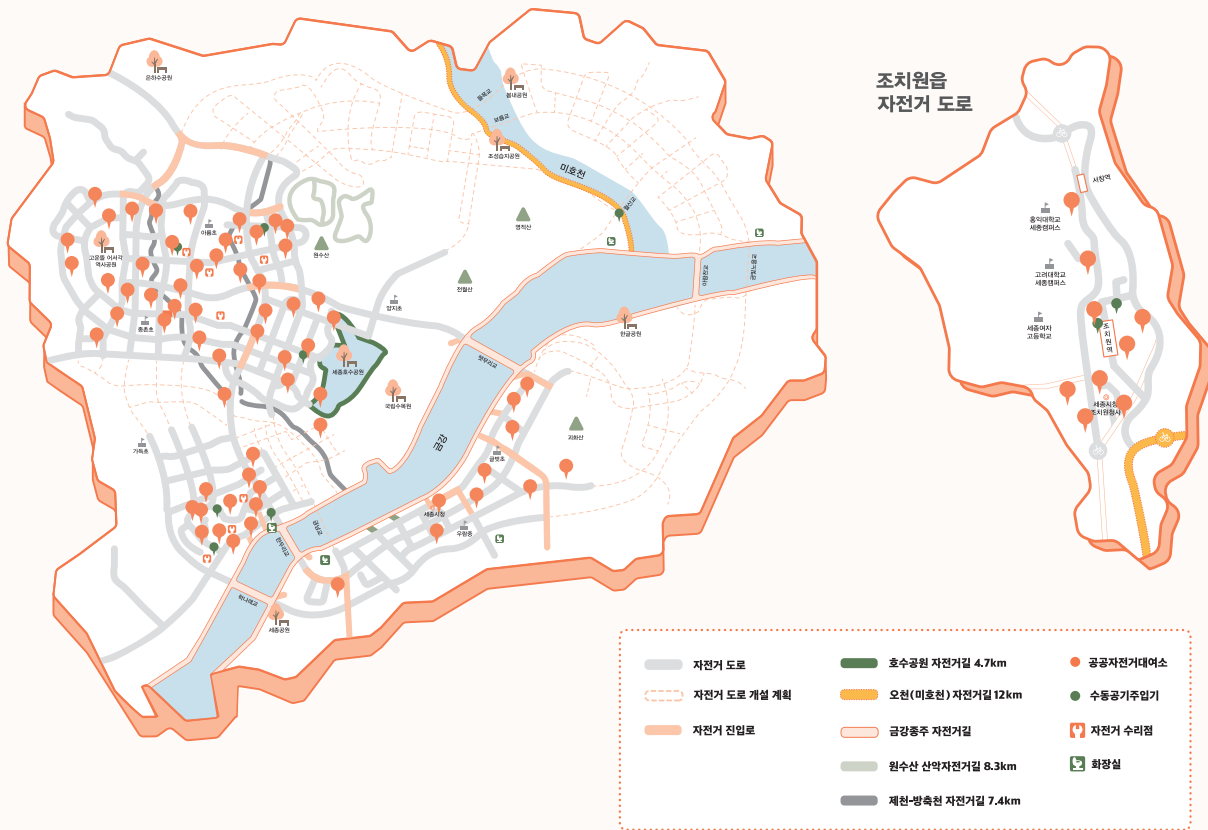


PM과 함께 쉽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행복도시 세종

세종시는 공공자전거 '어울링'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어울링은 물론 PM으로 세종 곳곳을 누비게 될 텐데요.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더욱 빛을 발하는 PM과 함께 쉽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즐거움을 누리보세요.

행복도시 자전거도로

*어울링 거치대(대여소)를 활용하여 PM 주차존으로 조성 중



조치원을
자전거 도로

PM과 함께 달리기 좋은 곳

세종호수공원(4.7km)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 가족과 함께 라이딩하기 좋은 곳으로 도심 속에서 여유로운 한 때를 보내기에 좋은 곳이다.

〈코스〉

너른들길(제1주차장)⇒감각정원⇒야생초화원⇒(수상무대섬 경유 가능)⇒나들숲⇒호수전망대⇒청음지⇒이팝나무길⇒푸른언덕⇒소나무숲길⇒이팝나무길⇒수변마루⇒연꽃데크⇒너른들길

오천(미호천) 자전거길(12km)

금강을 따라 달리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하이킹 코스. 코스 곳곳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달릴 수 있어 자연 속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다.

〈코스〉

한나라공원 → 연기향교 → 조천 연꽃공원

자세한 코스는 상단의 지도와 범례를 참고해 주세요.

타기 전에 한 번, 타고 나서 한 번 점검하세요!

무엇이든 자주 사용하는 만큼 관리 요령도 늘고 신경도 쓰게 되지만 한 번 방치하기 시작하면 먼지만 쌓이다 쉽게 고장나게 마련이다. 안전사고로 직결되는 고장, 미리미리 예방하려면 꾸준한 관리와 점검이 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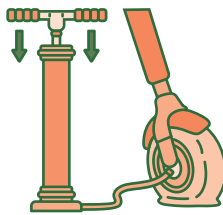
타기 전에 점검할 것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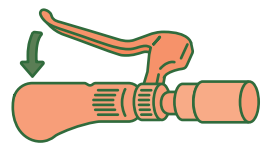
전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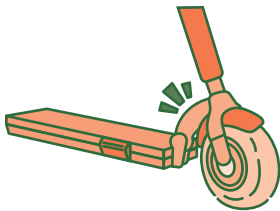
타이어에 공기압이 없는 상태로 주행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타이어 공기압 확인은 필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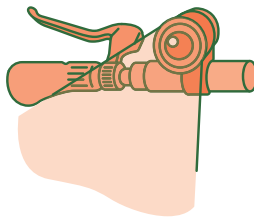
브레이크 레버가 핸드 그립 끝까지 닿는지, 또는 브레이크가 잘 잡히는지 확인한다. 만약 브레이크가 잘 잡히지 않는다면, 장력을 조절해야 한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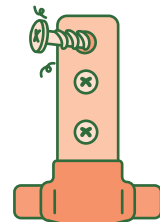
폴딩바를 잡고 흔들어 보면서 폴딩이 정확하게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야간 주행 시 라이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한동안 주행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한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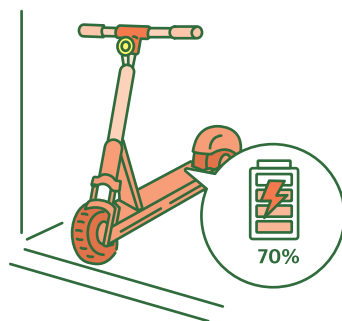
눈에 보이는 볼트가 결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라도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점검 후에 이용해야 한다.

7



모터, 휠에 결합돼 있는 볼트가 풀려 있는지 확인한다.

타고 나서 점검해야 할 배터리 관리 TIP



실외 보다는 실내 보관이 적합하며, 방전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장시간 보관 시에는 배터리를 70%만 충전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고, 잔량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배터리 관련 점검 시 전압 체크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



SAFETY NOW | 안전과 함께 집콕!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한 이용이 우선이다.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의 국내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196,200대(1,066억 원)로 파악됐다. 2017년에 97,500대의 PM이 판매된 것을 생각하면 2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 여기에 19개 서비스 사업자가 21,410대의 공유 PM 제품을 운영(2019년 말 기준)하고 있는 것을 더하면 국내 PM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도시교통의 혼잡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더 편리하다는 장점 덕에 시장이 커졌고,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PM 시장의 성장은 확실히 됐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 속도를 안전의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도로는 10분의 1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자전거도로 중 80% 가량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다. 즉 자전거도로가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PM이 달릴 수 있는 안전한 도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도 개선만으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은 물론 이용활성화는 어렵다.

개인형 이동수단이 본연의 장점을 발휘하면서도 안전한 이용을 바탕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하게도 '안전의식 정착'이다. PM이 활성화되면서 등장한 신조어, '킥라니'만 봐도 안전의식 정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킥보드를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다른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PM 운전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일으키는 사고가 빠르게 급증,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킥라니 같은 신조어도 만들어진 것. 실제로 국내에서 발생한 PM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0년 688건으로 3년 만에 6배 가까이 특히 2019년 8월에는 서울 한남대교 왕복 12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다 뺑소니 사고를 낸 킥라니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되며 논란이 거세진 일도 있었다.

이에 다시 한 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수단 면허제도를 신설하고, 헬멧 미착용 및 과속, 음주운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지 1년도 되지 않아 새로운 개정안 발의가 나오고, 시행되기에 이른 것 또한 PM 이용자들의 안전문화 정착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 미착용은 물론 인도 주행, 급정거 및 급제동, 1인 이상 승차 등 안전과는 거리가 먼 이용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관련 안전사고 역시 급증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친환경적이면서 남과 부딪히지 않는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은 한 번 더 확장됐고, 도시 혼잡 개선과 친환경 등의 장점이 있기에 전문가들은 향후 시장의 확장을 점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안전'도 확장되려면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확장이 필수다. 무엇보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이 '나부터' 안전한 이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글 | 유정(오세이프 에디터)

* 참고자료: <월간 교통> 2020.06 vol.268, 특집 '개인형 이동수단 현황과 정책적 과제'

안전을 향해 달려가는 스마트시티 전동킥보드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전동킥보드일 것이다. 최근 급증한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곳곳에서 쉽게 눈에 띄기도 하거니와, 관련 안전사고 및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안전에서만큼은 골칫덩이가 되기도 하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안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스마트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 추천배경

PM의 자전거도로 이용 및 만 16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도로교통법 개정, 20.12.10.) 전동킥보드의 안전성 및 교통분담률을 확인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의 사업성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

• 사업기간

2020.9 ~ 2024.8(48개월)

※ 지원기간: 2020.11 ~ 2021.5(7개월)

• 사업지역/사업비

1생활권 / 898백만 원(국비 398 / 민간 500)

• 사업내용

- 스마트폰 앱 활용의 자유이동형 공유 PM 서비스(18세 이용 가능)
- 속도제한: 실증구간 내 20Km/h로 속도 제한
 ※ 어린이보호구역 내 15Km/h 자동감속
 - 주·정차구역: 155개소 설치(스티커형, 독립형 96·가상존 59)
 - 보험 범위: 대인 1.8억(공제 50만 원), 대물 10억(공제 50만 원)
 - 안전장비: 헬멧 의무 착용
 (초기 200개 현장 비치, 분실 시 재 비치)

안전신분증으로 안전을 지켜요

안전신분증은 본인의 성명, 비상연락처, 혈액형, 질병 등의 의료정보를 스스로 기재하고 소지하여 실신, 상해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본인의 도움 요청 없이도 주변 사람, 구조대원 등이 안전신분증의 정보를 통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든 카드입니다.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 모두가 소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의 안전취약계층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사용하나요?

안전신분증을 수령 또는 출력하시어 서식에 개인정보를 개별적으로 기재하신 후, 지갑이나 휴대폰 케이스 등에 상시 휴대하시면 됩니다.

• 어디에서 배부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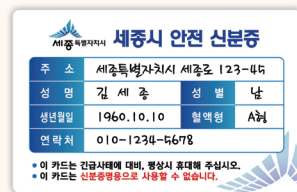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플라스틱 카드 형식의 안전신분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세종시 홈페이지에서 안전신분증 서식을 개별적으로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쓰이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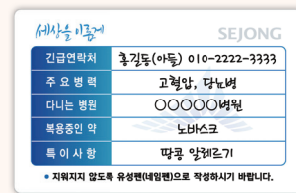
- 각종 사고 및 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서 주변 사람 혹은 구조대원이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심혈관질환 또는 당뇨로 인한 쇼크 등
-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길이나 집을 잃은 어린이, 치매 어르신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 안전신분증 예시

※주의사항※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으니 취급과 분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



<뒤>



위 QR코드로 접속하시면 안전신분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전신분증에 대한 개선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해당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기재된 담당자에게 문의부탁드립니다.

발행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기획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발행일 2021년 03월
 디자인·제작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

문의 안전정책과
 044-300-3613~4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는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위원회,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OSAFE)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매거진의 발간으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안전에 관해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QR code

홈페이지(sejong.go.kr)와 QR 코드로도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유증상자* 예방수칙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http://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